

광주시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협업행정 '최우수상'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개 과제 경합



광주시에 4일 시청 무등홀에서 협업행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19 광주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에 올해 추진한 협업행정 중 문화기반조성과의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로 선정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무등홀에서 협업행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19 광주광역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시가 추진한 협업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지난 3월 선정된 협업과제 78개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심사위원과 대학생 40명, 시민, 공무원 등 90명이 참여한 청중심사단이 맡았다. 이날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문화기반조성과의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관광자원화' 팀이 수상했다. 이 팀은 도시공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1개 부서·기관이 협업을 통해 전일빌딩을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설정했다.

우수상은 광산소방서 '민관학협업 개입형 소방안전교육운영' 팀과 생명농업과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빛찬들' 활성화'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은 광산소방서 '민관학협업 개입형 소방안전교육운영' 팀과 생명농업과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빛찬들' 활성화' 팀이 선정됐다.

광산소방서는 관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호남대, 지역 아동센터 등과 협업을 늘려, 집단 탐구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생명농업과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 농업기술센터 등이 협업을 통해 광주지역의 농산물 브랜드인 '빛찬들'의 품질관리를 차별화했다.

이밖에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줄이기' 팀과 동부소방서가 추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 활성화'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과제 추진 팀에는 포상금을 비롯해 인사기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종재 행정부시장은 "협업은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며 "협업행정은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시의 협업행정이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넘어 지역 정부기관과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소재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발굴하고 실무적 논의를 하는 등 협업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2022년 UN기후 변화협약총회 유치 나서

여수박람회장 TF 사무실 개소

전남도가 2022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본격 유치전에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제관에 최근 개소한 태스크포스팀 사무실에는 공무원 3명(도청 2명, 여수시 1명)과 시민사회 단체(비상근) 관계자 6명 등 9명이 근무한다.

TF팀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COP28 유치 범추진위원회'를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문화행사,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추진 등 대대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경남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COP 유치를 공동 협력키로 했다.

지난 3월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단장으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5개 시·군 및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경남 5개 시·군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총 26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COP28 유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추진단은 그동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강원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고 15명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T/F팀은 경남도 및 민·관·학 유치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COP28 유치범추진위원회를 구성, 12월 초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체와 상생협력 방안으로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본사사령

▲김도현

편집국 지역사회부

(여수 담당) 기자

<2019년 11월 5일자>

동구, 8일 제2회 가족음악제 개최

광주 동구가 8일 오후 2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광주 동구 가족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나눔음악회가 주최·주관하고 동구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제는 올해 3회째로 세대 간 화합과 주민들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제는 동구 거주민이 포함된 가족·친구·연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참가팀 접수를 받아 지난 2일 예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비둘기가족', '장구야 놀자', '동구의3대 엄진팔' 등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뽐낸다.

서구, 거버넌스 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주 서구가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한 2019 거버넌스 대상 공모에서 주민생활 편의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 행정혁신, 지치분권혁신, 정치혁신, 미래계획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전국적으로 64명이 부분별 수상자에 선정됐다.

서구는 심사에서 주민자치·보건·복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자치공동체 활성화, 주민 편의증진 건강복지 네트워크 실현, 통합돌봄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구,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인기몰이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이 광주시민들의 농촌문화 체험과 레저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은 지난 10월 7일 문을 연 뒤 각종 체험학습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이곳을 방문한 인원은 1만675명으로 집계됐다.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위주의 단체 방문객이 많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탐방객이 즐겨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는 평균적으로 900여명에서 1,000명 가량이 꾸준히 빛고를 농촌테마공원을 찾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하루에만 1,024명이 다녀가 당일 방문객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 8위

광주 북구는 2019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분석 결과 전국 자치구 중 종합경쟁력 부문 8위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4년째 시행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정부부처,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조사·분석해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경영성과(400점) 등 3개 부문의 합을 종합경쟁력으로 나타내며, 시(75개), 군(82개), 구(69개) 유형별로 진행됐다.

2019 광산구 아파트 DAY 행사 성료

2일 광주 광산구 주최, '2019 아파트 데이 추진위원회' 주관의 취향저격! 2019 광산구 아파트 DAY 행사가 첨단 쌍암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65개 아파트 회장과 1,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각 아파트에서 추진했던 공동체 활성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축제에서는 주민동아리 공연, 명랑운동회가 열렸고, 각종 체험·관람 부스와 마을장터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말 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50개 아파트 공동체 활동 홍보 부스에는 그간 각 아파트에서 진행했던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전시돼 행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혹한기 대비 시내버스시설검사

오는 20일까지 합동점검반 7명 10개 업체 대상

광주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혹한기 대비 2019년 하반기 시내버스 시설검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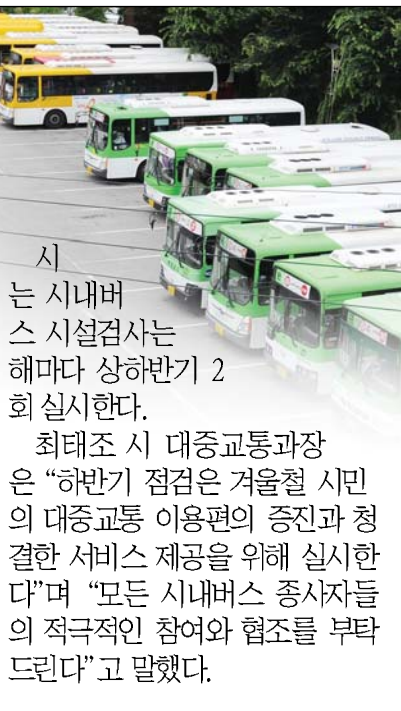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 7명이 지역내 10개 업체 시내버스 999대를 대상으로 시설작업과 점검 등을 점검한다.

검사는 시내버스 차고지나 기점지에서 겨울철 히터 작동여부, 배새, 안전장비 유무, 하차벨 위치, 교통약자석 지정여부, 청결상

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엔진룸 청소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유무, 타이어 파손, 외부도색 불량 등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부분도 같이 점검한다.

시는 비상탈출용 망치나 소화기 장착·충약 여부, 저상버스 경사판, 교통약자전용벨, 휠체어 안전벨트 작동 등도 점검해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시내버스 시설검사는 해마다 상반기 2회 실시한다. 최대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하반기 점검은 겨울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한다"며 "모든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500만	240,833원	1.1배
400만	125,531원	1.7배
300만	79,147원	2.1배
200만	48,103원	2.7배
100만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